

율곡 이이의 평화사상

한영우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는 조선시대 전기 유명한 유학자이자 정치가였다. 그는 '평화'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쓴 일은 없지만 그의 사상 가운데에는 '평화적인 사상'이 들어 있다. 유년 시절의 그의 행실을 살펴보면 그는 언행이 일치하는 평화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은 사생활에서나 공적인 생활에서나 일관되게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데 평생토록 힘을 기울였다. 이이는 성리학의 통합적 우주관을 이론화 한 이기론(理氣論)을 제창하였다. 율곡은 인간의 네 도덕정신인 사단과 일곱 가지 감정인 칠정을 대립적으로 보는 인성론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상대적인 시각에서 선과 악을 해석해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였다. 영정조 시대가 조선왕조의 중흥기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인 탕평책도 이이의 이런 화합, 통합의 정신에서 연유한다.

주제어: 이기론, 사단칠정, 향약, 탕평책, 신사임당

I. 평화란 무엇인가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의 평화사상을 쓰기에 앞서, 과연 율곡에게 '평화'사상이 있는가부터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율곡은 '평화'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쓴 일은 없지만 그의 사상 가운데에는 '평화적인

사상'이 들어 있다. 비단 울곡만이 아니라 유학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사상'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유교에서의 '평화'는 '평등'과 '화합' 또는 '공평'과 '화합'이 합쳐진 말이다. 그래서 '평등한 화합', 또는 '공평한 화합'이 바로 '평화'이다.

그런데 실제로 유교에서는 '평화'라는 말보다는 '화평'(和平)이라는 말을 더 선호했고, 때로는 '화평'과 비슷한 뜻으로 '중화'(中和)를 말하기도 했다. '평화'라는 단어는 주로 일본인들이 선호한 말이 근대에 와서 보편화된 것이다. 서양의 'Peace'라는 언어가 근대 이후 동양에 들어오면서 이를 '평화'로 번역하여 사용해 왔는데, 'Peace'가 과연 '평등한 화합'의 뜻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서양어를 동양어로 번역할 때 개념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평화'도 그 중의 하나인 듯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Peace'는 라틴어의 'Pax'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x'는 본래 예수나 성모(聖母)가 그려진 작은 패(牌)로서 로마시대 기독교인들이 미사를 올릴 때 여기에 키스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Pax의 뜻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로마제국이 주변 종족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이루어진 시대를 '팍스 로마나(Pax Romana)'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평화는 전쟁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자체도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에 이르는 시기에 서구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티나와 성지(聖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8차에 걸쳐 이슬람교도와 전쟁을 벌인 십자군전쟁이 '성전'(聖戰)으로 미화되었다. 다른 종교를 이단(異端)으로 보고, 이교도들을 대규모로 살육한 전쟁이 성스러운 전쟁으로 미화되고, 그것이 곧 평화를 가져온 방법으로 정당화된 것이다.

전쟁과 연관된 서구의 '평화'는 근대와 현대에까지 이어지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여 전쟁이 정지된 시대를 '팍스' 곧 '평화'로 부르게

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을 ‘평화조약’ 또는 ‘강화조약’으로 부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평화조약이 맺어져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화는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전쟁과 평화가 숨바꼭질을 해온 것이 인류역사일 것이다.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이유는 아마도 평화라는 개념이 주로 강대국이 사용하고 있을 뿐,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약소국에서는 강대국의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평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라는 단어를 위장한 또 하나의 나쁜 기억이 있다. 종족주의적 침략전쟁을 평화로 위장한 경우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면서 ‘동양평화’를 위해서라고 선전했다. 황색인종이 서양 백인종의 침략을 막고 대동단결하여 ‘대동아공영권’을 이루자는 주장이었다. 독일 나치스가 게르만민족의 위대성을 내세우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도 여기에 속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반대하고 진정한 평화를 촉구하는 평화주의 종교나 철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J.J. Rousseau: 1712~1778) 같은 사상가가 그렇다. 그러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인들도 전쟁을 긍정했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인정하는 사상가도 없지 않았다. 사회진화론자들은 약육강식을 통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던가. 헤겔의 변증법도 테제와 반테제의 갈등을 거쳐 새로운 단계의 합(合)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렇게 서구의 평화론이 대부분 전쟁의 불가피성과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유는 선악(善惡)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선과 악의 갈등이나 선에 의한 악의 응징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전쟁과 평화는 어쩌면 무한히

반복되는 운명을 띠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양 평화론의 특징과 성격을 위와 같이 정리해보면, 그 안에는 평등 관념에 기초한 화합이라는 요소가 매우 약하다. 그래서 Pax나 Peace가 과연 유교적 관념의 ‘평화’와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16세기 후반의 위대한 유학자인 율곡의 평화사상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에 앞서 동서양 언어의 차이를 먼저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I. 일상생활 속의 착한 행실

1. 유소년기의 행실

율곡의 평화사상은 그의 실제생활과 그의 글을 아울러 검토하는 방법으로 탐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그의 실제생활이 모가 나고 과격하며 주변사람과 심하게 충돌하는 성향을 지녔다면 그의 평화사상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곡은 언행이 일치하는 평화주의자였다.

율곡은 중종 31년(1536) 12월에 어머니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 1504~1551)¹⁾의 친정집인 강릉에서 태어나서 여섯 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 사임당은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아버지 신명화(申命和)는 깨끗한 선비 조광

1) 사임당이라는 당호(堂號)는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을 본받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趙光祖)의 문인으로서 딸 사임당에게 유학을 가르쳤는데, 그 지식과 행실이 바탕이 되어 유년기의 율곡을 반듯하게 키우고 기초적인 유학을 가르칠 만큼 교양이 있는 여인이었다. 여기에 타고난 예능적 재능을 겸비하여 그림과 자수(刺繡)에서 일가를 이룰 정도로 뛰어났다.

행실과 교양과 예능을 겸비한 어머니의 교육은 유년기 율곡의 정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율곡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강릉지방의 순박한 풍습도 어린 율곡의 정서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절의 율곡은 유달리 착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다섯 살 되던 해 사임당이 병이 나서 식구들이 경황이 없었는데, 어린 율곡은 아무도 모르게 외할아버지 사당에 들어가서 어머니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위로 하면서 안고 왔다. 또 어느 날 큰 비가 와서 개울이 넘치자 어떤 사람이 개울을 건너다가 휩쓸려 내려갈 위기에 처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웃고 있었는데, 율곡은 기둥을 끌어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다가 그 사람이 무사히 나오자 그쳤다.

여섯 살이 되자 외할머니가 마련해준 서울의 수진방(지금의 청진동)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었다. 영특한 아들을 출세시키려면 서울로 가서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아버지 이원수(李元秀; 1501~1561)는 나이 41세에 이르렀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아무런 벼슬이 없이 놀고 지내는 한량(閑良)이었다. 율곡을 가르칠 만한 학식이 없어 사임당이 사서(四書)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 뒤에 학당(學堂)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이 없다. 혹시 독학했는지도 모른다.

이원수는 덕수이씨(德水李氏)로서, 파주 율곡리(栗谷里)에서 대대로 살았다. 6대조인 이양(李揚)은 세종 때 공조참의를 지내고, 5대조인 이명신(李明晨)은 태조의 사위인 심종(沈淙; 세종의 장인인 沈溫의 친형)의 사위가 되어 왕실의 먼 외척이 되었다. 세종은 그에게 동지돈녕부사(중2

품)의 높은 벼슬을 내렸고, 세조 때에는 홍주목사를 지냈는데 선정을 베풀었다.

이명신이 왕실의 외척인 심종의 사위가 된 것이 인연이 되어 심씨 집안과의 관계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율곡이 뒤에 벼슬살이를 할 때 동인계열의 사류들은 당시 명종비 인순왕후의 종조부로서 권력을 잡고 있던 심통원(沈通源)과 그의 종손인 심의겸(沈義謙)에게 율곡이 큰 신세를 졌다고 하면서 율곡을 비난했으나, 오히려 율곡은 권력을 남용한 심통원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율곡이 외척세력과 한 패라는 동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5대조인 이명신 이후로 율곡의 선대는 하급 벼슬아치로 전락했다. 4대조는 군수(중4품)에 머물고, 3대조는 판관(중5품)에 머물렀으며, 할아버지는 무직이었으며, 아버지 역시 오랫동안 무직이었다. 그래도 파주에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 재산이 4남3녀의 율곡 형제들이 나누어 받았다. 그 상속문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율곡이 받은 재산은 노비 15명과 논밭 33복이었다. 이 땅은 약 1결의 3분의 1에 해당하므로 매우 가난한 편이었다. 노비를 먹이기에도 부족한 재산이었다. 율곡은 누이들이 받은 재산보다도 더 적게 받았다.

이원수는 이렇게 파주에 선대로부터 받은 약간의 재산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상속했지만 서울에는 집이 없다가 장모가 사준 집에 거처하게 된 것이다. 한량으로 지내는 남편에 대한 사임당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는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임당은 남편이 늦게라도 공부하여 과거를 거쳐 벼슬길에 나가기를 기대했지만, 이원수는 공부는 하지 않고 당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선비들을 죽게 만든 당숙 이기(李芑) 집에 식객으로 드나들면서 벼슬자리를 달라고 애원하여 50세 되던 해에 조운(漕運)을 담당하는 수운판관(水運判官; 중5품) 자리를 얻었다. 사임당은 이런 행태의 남편이 더욱 마땅치 않아 당숙집에 드

나들지 말라고 충고하여 발길을 끊게 했다. 오죽했으면, 남편을 “이 웬수야”라고 불렀겠는가? ‘이원수’가 사임당에겐 ‘이웬수’로 보였던 것이다.

사임당은 자식들 교육문제로 서울에 이사 오긴 했으나, 강릉에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 이씨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강릉과 서울을 오가면서 살았다. 사임당이 무남독녀이기 때문이었다. 사임당은 시집온 뒤로 30년간 살다가 4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운데 강릉에 산 기간이 16년이었으니, 남편과 동거한 것은 14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원수는 처가에서 마련해준 강원도 봉평에서도 자주 살았으므로, 강릉을 왕래하면서 사임당을 만났을 것이지만, 서울에서 공부해야 하는 율곡은 어머니를 따라 강릉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희첩(姬妾)으로 있던 여종의 부양을 받으면서 지냈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율곡의 끈은 마음씨는 변치 않았다. 일곱 살 되던 해 이웃에 살고 있던 진복창(陳復昌)이라는 벼슬아치를 보고 율곡은 「진복창전」이라는 글을 썼다. 그 내용은 이렇다. “군자는 마음속에 덕을 쌓는 까닭에 마음이 늘 태연하고, 소인은 마음속에 욕심을 쌓는 그 마음이 늘 불안하다. 내가 진복창의 사람됨을 보니, 속으로는 불평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려 한다. 이 사람이 만약 뜻을 얻게 된다면 나라의 근심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율곡의 예언대로 진복창은 뒤에 독사 같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이 을사사화를 일으켜 선비들을 때죽음시킬 때 그의 앞잡이가 된 인물이었다.

율곡이 11세 되던 해 아버지가 병환을 얻어 고생하자 율곡은 자신의 팔뚝을 찢러 피를 뽑아 아버지에게 드리고 사당에 가서 울면서 아버지 대신 자신이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효성 때문인지 아버지 병은 나았다. 13세가 되자 율곡은 진사(進士) 시험의 초시에 급제하여 화제를 일으켰으나,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그쳤다.

올곡이 15세 되던 해 아버지가 수운관관이 되자 그 다음해 삼청동에 있는 우사(寓舍)로 이사를 갔다. 벼슬아치들이 임시로 빌려 사는 집이었다. 이때 사임당도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사 간 지 두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 16세의 올곡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

2. 승려가 되었다가 환속하다

어머니를 여읜 올곡은 심각한 정신적 공황에 빠졌다. 올곡은 어머니의 죽음을 앞에서 임종하지 못하여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 이유는 이렇다. 아버지가 세곡(稅穀)을 배로 실어 나르는 수운관관이었기 때문에 자주 배를 탔는데, 이해 5월에 이원수가 평안도에 갈 때 큰 아들과 셋째 아들 올곡을 배에 태우고 함께 떠났다가 일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서강(西江)에 도착했다. 이때 평안도에서 낚그릇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빛깔이 변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서강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한 올곡은 파주 자운산 자락에 모셔진 어머니 묘소에서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했다.

거상을 마친 올곡은 19세에 가족들이 모르게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승려가 되었다. 속세를 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세상을 버리려고 했겠는가? 여중으로 있다가 계모가 된 어머니가 올곡을 학대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이 여인 때문에 어머니가 생전에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도 올곡은 서모를 뒤에 다시 모시고 살았다.

올곡이 승려가 된 배경에는 집에 불경(佛經)이 많았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평소 올곡은 아버지가 집에서 읽고 있던 불경(佛經)을 즐겨 읽었다고 하므로 불교에 대한 관심도 없지 않았다. 올곡의 착한 마음속에는

불교사상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율곡이 머리를 깎고 금강산에 들어가자 생불(生佛)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산사에 퍼졌다. 승려생활이 너무나 모범적이었다. 그러나 1년 뒤에 율곡은 하산하여 강릉의 외할머니를 찾아갔다가 다시 파주와 서울로 돌아왔다. 이단에 빠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경문」(自警文)을 써서 새 출발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뒷날 승려가 된 이유를 회고하면서 “어머니를 잃는 재앙이 참담하게 몸에 다가오고, 방향을 잃은 병이 마음을 때려서 미친 듯이 산속으로 달려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선조 임금에게는 “일찌기 자모(慈母)를 여의고는 망령되이 슬픔을 잊고자 불경을 탐독하다가 본심이 어두워져 드디어 깊은 산속으로 달려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율곡이 세속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다스려지고 나서 원래 어머니가 바랐던 유학의 길로 다시 돌아가 작게는 가족의 생계를 구하고 크게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향인 파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유학공부를 다시 시작한 율곡은 파주에 사는 중요한 두 학우를 만났다. 한 사람은 우계 성혼(牛溪 成渾)이고, 또 한 사람은 구봉 송익필(龜峰 宋翼弼)이었다. 성혼은 평생 처사(處士)로 지낸 성수침(成守琛)의 아들로 가학을 계승하여 오직 학문에만 전심했다. 송익필은 아버지가 비첩(婢妾) 소생이어서 출세를 단념하고 평생 학자로 일생을 마쳤다. 율곡은 두 학우와 수시로 편지를 교환하면서 학문을 토론하여 대학자로 성장하여 후세인들은 이 세 사람을 가리켜 ‘파주3현’(坡州三賢)으로 추앙했다.

율곡은 21세 때 한성시(漢城試)에 도전했으나 ‘대책’(對策)에서만 장원 급제하고 끝났다. 다시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알성시(謁聖試)에 응시했는데, 수험생들이 옆에 앉는 것을 기피하여 가까스로 응시했으나 또 실패했다.

22세가 되자 우선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곡산노씨(谷山盧氏)와 결혼했는데, 세종 때 의관(醫官)이던 노중례(盧重禮)의 후손이었다. 장인은 목사(牧使; 종3품)를 지냈지만 당당한 집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황해도 해주 야두촌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어 훗날 율곡이 이곳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후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부인 노씨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해 측실(側室)에게서 세 아들을 낳아 재산을 나누어 주고 대를 잇게 했다. 율곡은 적서차별을 반대했는데, 이를 몸소 실천한 셈이다. 노씨부인은 율곡보다 8년을 더 살았으나, 왜란이 일어나자 남편 무덤 옆에서 순절하여 뒤에 열녀로 표창을 받았다.

율곡이 생원시와 진사시, 그리고 문과에 급제한 것은 29세 때였다. 이때가 명종 19년(1564)이다. 13세부터 시험에 응시했지만 16년 만에 급제한 것이다. 율곡은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한 천재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최종시험에서 아홉 번 장원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 차례 시험을 치러 장원급제한 것을 모두 합쳐서 하는 말이다.

3. 벼슬길에 나가 <경장>을 촉구하다

문과에 급제한 율곡은 6조의 낭관(郎官: 5~6품)과 사간원의 언관(言官)을 두루 지내면서 패기 넘치는 선비의 기개를 보이기 시작했다. 문정왕후의 동생으로서 권세를 부리고 사림을 탄압하던 소윤파 윤원형(尹元衡)과 심통원(沈通源) 등 부패한 척신(戚臣)을 탄핵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리고 백성을 괴롭히던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을 개혁하는 일을 긴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32세 때 명종이 죽고 후사가 끊어지자 중종의 후궁 소생인 16세의 선조가 즉위하자, 선비들은 이제야말로 부패한 척신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선비정치를 회복할 때라고 여겼다. 선조도 명성 높은 율곡에게 크게

의지하여 홍문관과 사간원의 청요직을 주어 우대했다. 선조는 율곡을 스승처럼 여겼고, 율곡은 선조를 성군(聖君)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율곡이 임금에게 기대하는 것은 ‘경장’(更張)이었다. 그것은 혁명적 개혁도 아니고, 수구(守舊)도 아닌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말한다. 종종 때 조광조(趙光祖)가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수구세력의 역습을 받아 희생된 전례를 거울삼아 율곡은 하루에 한 가지씩 고쳐나가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

율곡은 조광조의 개혁정신을 높이 평가했으나, 그 방법이 점진성이 부족하고 너무 날카롭고 직선적이어서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작사 무점 직전태예’(作事無漸 直前太銳)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개혁의 목표가 정당해도 방법이 너무 날카롭고 급진적이면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와서 실패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율곡의 평화주의적 개혁노선이 여기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율곡은 선조 초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받아 동호(東湖)에 있는 독서당에 가서 공부하는 특별휴가를 받았다. 요즘말로 하면 연수휴가를 받은 셈이다. 여기서 그는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저술하여 34세 되던 선조 2년에 임금에게 바쳤다. 연구결과 리포트에 해당한다. 그 내용은 경장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임금이 먼저 뜻을 굳건히 세울 것, 학문정치를 할 것,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할 것, 언로를 넓힐 것, 수취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선조는 율곡의 건의를 경청하면서도 실천에는 소극적으로 임하여 율곡을 실망시켰다. 율곡은 그럴 때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이 ‘토붕와해’(土崩瓦解)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경장을 촉구했다. 집에 비유하면 담이 부서지고 기와가 깨져서 목수가 와서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곧 집이 붕괴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 중병이 든 환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용한

의사가 와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사람에 비유했다. 또 당시 대 상황을 ‘중쇠기’(中衰期)라고도 진단했다. 왕조가 건국된 지 200년이 지나 창업(創業)의 패기도 사라지고 수성(守成)의 정신도 무너지고 무사안일 속에서 기강이 무너지고, 척신의 횡포가 극에 달해 민생이 파탄하여 머지않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율곡의 진단과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여 율곡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선조나 신하들은 그제야 율곡이 선견지명을 가진 위인임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경장에 대한 임금의 소극적인 반응에 실망한 율곡은 벼슬을 버리고 해주 야두촌으로 은거하여 후학을 기르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임금이 또 불러내어 청주목사, 사간원, 홍문관의 요직을 제수했다. 율곡은 39세 되던 선조 7년에 『만언봉사』(萬言封事)로 불리는 개혁안을 다시 올렸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자 다시 낙향했다가 다시 부름을 받고 다음해인 선조 8년에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집필하여 임금에게 올렸다. 이 책은 임금의 필독서로서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이론을 제시한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책으로서 율곡의 대표적 저서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선후기 영조와 정조 같은 임금들이 경연(經筵)에서 이 책을 수시로 강독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

4. 동서분당의 탁류 속에서 생애를 마감하다

율곡이 40세가 되던 선조 8년(1575)부터 정치적으로 큰 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나뉘어 서로 정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인은 대체로 서울과 근교에 사는 기성 사림들이고, 동인은 이황, 조식, 서경덕 등의 학풍을 따르는 신진 사림들이었다. 두 당

파 사이에는 이념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지만,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율곡은 스스로 당색을 띠지 않았으나, 동인들이 그를 서인으로 몰기 시작했다. 율곡은 대체로 중립을 지키면서 두 당파를 조정하고 화합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른바 ‘조제보합’(調劑保合)을 내세워 두 당파가 서로 권력을 나누고 협조하도록 촉구했다. ‘조제보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서인 가운데에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고, 동인 중에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들어 있기 때문에, 두 당파에서 좋은 사람을 골라 등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파의 차이를 선악(善惡)과 흑백(黑白)의 차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치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없었지만, 두 당파의 극단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

율곡은 당쟁과 임금의 경장 지연에 실망하여 다시 관직을 버리고 해주로 낙향하여 교육과 저술에 전념했으나, 또 임금이 불러들여 47세 되던 선조 15년(1582)에는 병조판서를 제수했다. 선조는 율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인들을 멀리했다.

율곡은 병조판서에 있으면서 당시 여진족이 북방을 괴롭히던 현실을 목격하고 큰 위기의식을 느꼈다. 경장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이었다. 그래서 먼저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공납제를 개혁하여 민생을 살려내야 군대가 강해지고 국방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 서얼차대의 혁파라든가 노비제도의 개선 등을 단행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국방도 안정될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장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임금은 경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늘 그 부작용을 염려하면서 개혁에 나서지 않았다.

율곡은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도덕이 꽃필 수 없다는 신념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어, 경제나 국방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경제사(經濟司)라는 특

별기구를 설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경제를 강조한 학자는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허공에서 맴돌았다.

그런데 병조판서 시절에 율곡은 조그만 실수를 저질렀다. 여진족의 침략이 급박해지자 임금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마(軍馬)를 바치는 자는 북방방어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 사실 당시 선조는 율곡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상황이었고, 또 뒤에 임금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려고 했었다. 율곡의 실수를 임금은 탓하지 않았으나, 동인들이 호기를 맞이했다고 판단하여 맹공을 퍼부었다. 율곡이 '무군오국'(無君誤國: 임금을 무시하고 나라를 그르치다)의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면서, 그동안 율곡이 살아오면서 무수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공격했다.

이렇게 율곡이 큰 곤경에 빠지자 율곡을 존경하고 따르던 학우 및 제자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 동인의 주장이 허황된 거짓이이라고 반박했다. 서인과 동인의 싸움이 절정에 이른 것이다. 율곡은 끝내 벼슬을 버리고 해주로 낙향했다가 병이 들어 서울로 돌아와 다음해 1월에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Ⅲ. <이기론>에 내포된 평화사상

율곡은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나 공적인 생활에서나 일관되게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데 평생토록 힘을 기울였다. 사생활에서는 집안의 노비들에게도 온정을 베푸는 것을 가훈(家訓)으로 삼았고, 서얼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자신의 후계자를 서자(庶子)에게 넘겼으며, 장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재산을 서얼들에게도 똑같이 나누도록 만들었다.

율곡은 벼슬한 뒤에 죽을 때까지 거의 100명에 가까운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4형제 가운데 12세 연상인 큰 형은 참봉(종9품)을 하다가 47세에 요절하여 그 식구들을 모두 받아들여 먹여 살렸고, 둘째 형은 머리가 아둔하여 벼슬을 하지 못해 그 식구들을 함께 끌어안고 살았다. 토지가 부족하여 장사를 하기도 했다. 둘째 형은 간혹 동생 율곡의 이름을 팔아 이득을 취하기도 했는데, 동인들은 이것이 모두 율곡이 한 것으로 몰아갔다. 동생은 진사를 거쳐 현감(종5품)을 오랫동안 지내다가 말년에 정3품에까지 올랐지만 그것은 율곡이 죽은 뒤였다. 율곡이 처가 고향인 해주로 낙향한 것도 처가 재산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율곡이 이황이나 성혼처럼 처사(處士)로 살지 못하고 낙향과 벼슬을 반복한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경장을 실현하여 나라를 구제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율곡은 가난에 몰리면서 평생을 살았다.

율곡은 지방에서 벼슬하거나 은거하고 있을 때 여러 종류의 향약(鄕約)을 만들었는데, 그 성격이 주자(朱子)의 향약과는 달랐다. 주자의 향약은 주로 도덕적인 교화에 중점을 둔 것인데 반하여, 율곡의 향약은 경제공동체를 통한 상부상조에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계>(契)라는 전통적인 경제공동체조직을 향약에 도입했던 것이다. 그리고 향약에는 양반뿐 아니라 서얼과 평민도 참여시켜 신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동인과 서인 사이의 당쟁을 조제보합하려던 노력도 정치적으로 ‘평등한 화합’ 곧 ‘정치평화’를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가 당쟁을 극복하기 위해 탕평정책을 쓰게 된 것도 그 뿌리는 바로 율곡의 ‘조제보합론’에서 나온 것이다. 싸움의 극복을 힘의 논리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당 속에도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이 있고, 저 당 속에도 선인과 악인이 있다는 조제보합론의 탕평정책이야말로

‘평등한 화합’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지만 율곡의 평화사상은 철학적으로 뒷받침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율곡다운 모습이다. 독창적인 이기론(理氣論)이 바로 그것이다. 철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물을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우주관이나 인생관 속에서는 ‘평등한 화합’이 어렵다. 어떻게 선과 악을 섞어서 화합시킬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선과 악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 가운데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악 속에도 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라볼 때에만 ‘평화’는 가능하다.

율곡 이기론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주의 원리와 인성론(人性論)을 이(理)와 기(氣)를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 이기론이다. 주자학자들의 일반적인 우주론과 인성론은 이(理)를 형이상(形而上)의 존재로 보고, 이(理)는 절대순수하고 선(善)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기(氣)는 형이하(形而下)의 존재로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기의 상호관계를 논할 때에는 이를 기보다 상위로 인정하는데 이런 주장을 주리론(主理論)으로 부른다.

주리론자들이 이런 이론을 인성론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인간이 지닌 마음을 이기(理氣)에 대입시켜 해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인의예지(仁義禮智)와 같은 네 가지 도덕정신 곧 사단(四端)은 이(理)에서 발원한 것으로 매우 선한 것이다. 한편 인간이 가진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증오, 욕망)과 같은 일곱 가지 감정, 곧 칠정(七情)은 기(氣)에서 발원하므로 착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다고 본다.

이 이론을 따르면,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람을 분류할 때 이 이론을 적용하면 사단이 우세한 사람은 성인(聖人)이고, 칠정이 우세한 사람은 성인만 못한 보통사람들이다. 만약 칠정만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

인(惡人)일 것이다. 그러니 성인과 보통 사람과 악인이 평등한 화합, 곧 평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특히 칠정의 세계를 주로 표현하는 문학이나 예술의 경우는 그렇게 좋은 일로 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율곡의 이기론은 이와 달랐다. 율곡의 주장을 따르면, 이(理)와 기(氣)는 형식상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누어지지만, 서로 따로따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理) 속에 기(氣)가 있고, 기 속에도 이가 들어 있다고 본다. 이런 이론을 <이기가원적 일원론>(理氣二元的一元論)으로 부른다. 다시 말해서 이와 기는 둘인 듯하면서 하나요, 하나인 듯하면서 둘이라는 말이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느냐 하면, 이는 기를 올라타고 있어서 하나가 되고, 기는 항상 이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발이승>(氣發理乘)으로 불렀다. 기(氣)가 발동하면 동시에 이(理)가 기(氣)에 올라탄다는 말이다.

다만 이와 기가 서로 섞여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좀 더 착한 사람도 있고, 덜 착한 사람도 있지만, 완벽하게 착한 사람과 완벽하게 나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율곡은 이런 우주론을 인성론에 대입하여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단과 칠정은 반대개념이 아니고, 사단 속에 칠정이 섞여 있고, 칠정 속에도 사단이 들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칠정 가운데 기쁨(喜), 슬픔(哀), 사랑(愛), 좋은 욕망(欲)은 사단의 인(仁)과 서로 통한다. 그리고 칠정 가운데 노여움(怒), 미워함(惡)은 사단의 의(義)와 통한다. 또 칠정의 두려움(懼)은 사단의 예(禮)와 서로 통한다.

한편, 이 이론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다. 사단 가운데 측은한 마음인 인(仁)은 칠정의 슬픔(哀)과 서로 통하고, 사단의 부끄러운 마음인 의(義)는 칠정의 미워함(惡)과 통한다. 사단의 사양하는 마음인 예(禮)는 칠정의 두려움(懼)과 통한다.

울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칠정은 인간의 천성에서 우리나라오는 자연스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처음부터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칠정에도 사단이 들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울곡은 이런 이기설을 가지고 38세 되던 해에 가장 절친한 학우인 성혼(成渾)과 수십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했는데, 실제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실례를 들어가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정당화했다. 하나만 예를 들겠다. 울곡은 이와 기의 관계를 물과 그릇에 비유했다. 그릇에 물을 담아 놓으면 그릇이 움직일 때마다 물이 움직인다. 물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릇이 움직이면 비로소 물이 움직인다. 이 경우 그릇은 기에 해당하고 물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물과 그릇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래서 이와 기는 하나다.

이기설을 둘러싼 논쟁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설이 옳고 어느 설이 그르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현대 과학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주론과 인성론의 차이가 품고 있는 현실적인 태도이다. 선악을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평화에 이롭겠는가? 아니면 울곡처럼 선악을 이원적 일원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평화에 이롭겠는가? 그 답은 자명하다. 울곡의 철학이 한층 포용성이 높고 평화에 이로울 것이다.

IV. 나가면서: 평화론의 미래를 위한 제언

이 글의 앞부분에서 서양의 'Peace'라는 용어가 동양에서 '평화'(平和)라는 단어로 번역되면서 두 단어의 뜻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서양의 'Peace'는 전쟁이 정지된 상태의 안정을 뜻하는 것으로 주

로 정치용어로 사용되어 왔다면, 동양의 ‘평화’는 ‘평등한 화합’ 또는 ‘공평한 화합’의 뜻이 강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았다. 두 단어가 모두 ‘안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그 ‘안정’이 갖는 의미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서양의 ‘Peace’는 그 바탕에 강자(强者) 또는 선인(善人)이 약자 또는 악인(惡人)을 무력으로 응징하여 굴복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안정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전승되어, 근대에 와서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는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으로 이어져온 전통이다. 이 철학 속에는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와 선악(善惡) 이분법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

물론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였던 장 자크 루소(J. J. Rousseau)는 자연법칙을 사랑과 평등과 조화에서 찾으면서 이런 자연법칙에 순응하면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그런 철학은 봉건사회를 극복하여 인간의 자율성을 되찾는데 기여했지만 서양철학사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서양의 ‘Peace’는 주로 국제관계에서 쓰이고, 사회내부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통합시키고 안정시키는 원리로서의 ‘Peace’를 발전시키는 데는 미흡했다. ‘Peace’는 대부분 국제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국과 패전국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을 ‘평화조약’이라고 부르고, 평화조약에 의해 도래한 안정을 ‘국제평화’로 부른다.

그러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평화’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시기에 이르면 갈등이 다시 표출되면서 전쟁이나 투쟁으로 재발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었다. 그러니 이런 평화는 엄밀히 말하자면 ‘임시적인 평화’인 동시에 다분히 ‘위장된 평화’인 셈이다.

과거의 평화가 이런 한계를 지녔다면 미래의 평화는 보다 항구적이고,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평화로 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관이나 세계관, 인생관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

체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것이 우주의 자연법칙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철학적 인식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강자와 약자, 선과 악의 대립이 무한하게 반복되면서 서로 간에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자는 선을 독점하고, 지는 자는 악으로 매도되는 가운데 일시적 평화를 거쳐 또 다른 전쟁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보편적 평화에 대한 미래의 과제를 생각할 때 오히려 서양의 평화이론 보다는 불교나 유교의 우주관에서 배울 점이 오히려 많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을 대립으로 보지 않고 서로 포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분법(二分法)이 없다. 이런 이론을 <하나가 둘이요, 둘이 곧 하나>(一而二 二而一), 또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一卽一切 一切卽一), <하나가 많음이요, 많음이 곧 하나>(一卽多 多卽一)이라고 주장한다. 비유하자면 공중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이지만, 달을 반영하는 달은 무수히 많다. 백만 명이 달을 보면 백만 개의 달이 있지만 실은 하나의 달일 뿐이다.

성리학에서도 비슷한 우주관을 보이고 있다. 우주는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음양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태극(太極)이다. 우리가 태극을 보면 음양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동그라미 속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성리학의 통합적 우주관을 인성론(人性論)과 연결시켜 총체적인 이론을 제시한 것이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이다. 우주의 원리를 형이상(形而上)의 이(理)와 형이하(形而下)의 기(氣)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와 기를 둘인 동시에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런데, 통합적 이기론을 가지고 인성론을 설명할 때에는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내렸다.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은 인성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사단(四端; 仁義禮智)이나 칠정(喜怒哀懼愛惡欲)을 놓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했다. 곧 사단은 절대적으로 선(善)한 것이고, 칠

정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고 보았다. 이런 논쟁을 가장 심오하게 발전시킨 것이 조선이었다. 조선의 인성론은 세계 철학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공헌이다. 한동안 학자들은 이런 논쟁을 부질없는 공리공담(空理空談)으로 폄하했지만 그것은 참으로 무식한 말이다. 그래서 요즘의 철학연구자들은 조선시대의 이기논쟁을 새롭게 재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기론의 인성론을 더욱 발전시켜 통합적 인성론을 주창한 사람이 바로 율곡 이이(栗谷 李珣)다. 그는 사단과 칠정을 대립적으로 보는 인성론을 거부하고 사단 속에도 칠정이 있고, 칠정 속에도 사단이 있다는 새로운 인성론을 펴고, 가장 절친한 학우로서 이황(李滉)의 이론을 따르고 있던 성혼(成渾)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율곡 이이의 인성론은 모든 사람의 인성(人性)이 기본적으로 선악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맹자(孟子)로부터 시작된 성선설(性善說)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론화한 셈이다. 율곡의 성선설은 어찌 보면 루소의 자연법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시대는 율곡이 루소보다 훨씬 앞서 있다. 루소는 18세기 중엽 사람이고 율곡은 16세기 중엽 사람이니 200년이나 앞선다. 일부 학자들은 프랑스의 계몽사상이 주자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여기서 하나의 중대한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선악을 대립으로 보는 것이 통합과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선(絕對善)과 절대악(絕對惡)을 부정하고, 선에도 부분적으로 악이 있고, 악에도 부분적으로 선이 있다는 상대적 시각이 평등과 화합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인가? 그 대답은 자명할 것이다. 율곡이 평상시의 생활이나 정치관에 들어가서도 소외된 사람들이나 천시당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끌어안고,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이 선과 악을 서로 독점하여 '우리 당은 군자(君子)이고, 너의 당은 소인(小人)'이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싸울 때, '서인 가운데에도 군자와 소인이 있고, 동인 가운데에도 군자와 소인이 있

으니, 두 당파 속의 균자를 합하여 조제보합하자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율곡이 주자학자이면서도 다른 주자학자와 달리 포용성을 지닌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자라온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유년기에 어머니 사임당으로부터 받은 사랑어린 감화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고, 순박한 강원도의 습속이 자신도 모르게 젖어든 결과일 것이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충격과 절망감 속에서 1년간 승려생활을 보내면서 불교경전에 담긴 ‘이사무애론’(理事無涯論)이나 박애정신에 물든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법화경』(法華經)에 담긴 우주관은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二而一 一而二)이라는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론은 율곡이 주장한 ‘이기이원적 일원론’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율곡은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았다. 우선 아버지가 50세가 되도록 벼슬이 없는 한량으로 지내고, 그 밑에서 7남매와 노비들을 부양했으니, 얼마나 곤궁했겠는가? 어머니 사임당이 자수와 그림을 많이 제작한 것도 취미생활만은 아닌 듯싶다. 이것들을 팔아서 생활비를 보태려는 목적이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율곡의 4형제와 3자매들이 뒤에 어른으로 성장했으나,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율곡에게 의지하는 형편이었으니, 10명에 가까운 식구를 거느리고 살았던 율곡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 공동체적 상부상조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율곡과 학문적으로 절친했던 성혼도 벼슬이 없는 가난한 한사(寒士)에 지나지 않았고, 송익필은 혈통이 비첩(婢妾)의 후손이었으나, 그를 무시한 일이 없었다. 율곡은 서얼이나 노비 등 천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따듯

한 시선을 보내고, 제사상속이나 재산상속에 있어서 서열을 차별하지 않았다. 향약(鄕約)을 시행할 때에도 서열이나 평민의 참여를 개방했다.

율곡은 뒷날 숙종 대에 학우 성혼과 함께 성균관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후세 선비의 귀감으로 존경받았으며, 그가 지은 『성학집요』는 영조(英祖)와 정조(正祖) 같은 성군(聖君)들이 경연(經筵)에서 필독서로 읽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가 주장한 당파간의 '조제보합론'은 영조와 정조가 추진한 탕평책(蕩平策)의 정신적 지침이 되었다. 영정시대가 조선왕조의 중흥을 가져온 시대가 된 것은 바로 탕평책의 결과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누구나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평화가 뜨거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정치판도 정당간의 갈등이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화는 나라 밖과 나라 안에서 동시에 절박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심층적인 논의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정치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단기적 해법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그 해법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힘을 바탕으로 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평화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전세계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문명론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힘의 논리는 단기적 평화를 가져올지 모르나 원대한 평화는 철학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정옥자. 『신사임당전: 부단한 자기 생 속에 예술을 꽃피우다』. 서울: 민음사, 2016.

한영우. 『울곡 이이 평전: 조선중기 최고의 경세가이자 위대한 스승』. 서울: 민음사, 2013.

한영우. 『우계 성혼 평전: 벼슬과 부귀를 멀리한 참선비』. 서울: 민음사, 2016.

The Peace Thought of Yulgok Yi I

Han, Young-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Yulgok Yi I (栗谷 李珥: 1536~1584) was one of the most prominent Confucian scholars and politicians of the Joseon Dynasty. Although he never wrote specifically on the subject of “peace,” his world view includes an ideology of peace. We can see that he is a pacifist in both word and deed by examining his behavior during his childhood. Yulgok consistently sought to alleviate tensions and embrace others as a means of creating peace throughout his public and private life. Yi I advocated the Liqi Theory(理氣論) which conceptualized the Neo-Confucian integrated concept of the universe. Yulgok rejected the theory of human nature that argued that the four innate moralistic qualities (sadan) and the seven passions of man (chiljeong) are in conflict. Rather he interrupted good and evil from a relativistic perspective and pursued harmony and peace. One reason that the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period is considered a period of revival in the Jeseon Dynasty is the Tangpyeong policy and the spirit of harmony and integration espoused by Yi I.

Key words: Liqi Theory(理氣論), sadan chiljeong(四端七情), Hyangyak, Tangpyeong policy, Shin Saimdang

한영우(Han, Young-Woo)

서울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장, 규장각관장, 인문대학장을 지냈으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 한국사연구회장, 국사편찬위원,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겸 이화학술원장을 역임했다. 『다시 찾는 우리역사(1~3)』, 『우계 성혼 평전』, 『울곡 이이 평전』, 『정조평전』, 『한국 선비 지성사』 외 다수의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